인천공항길 믿음

(눅17:1-10)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5.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천공항 길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인천공항 길 믿음'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오늘 본문 모두가 다 풀리게 됩니다.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할 때, 이 실족케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풀리고, 또 그 다음에 ‘용서하라’ 하신 이 말씀, 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이 점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풀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 많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어떤 보상도 바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이 종의 비유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다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공항 길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길,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아시죠?
88도로에서 직접 진입을 하던지, 아니면 강변북로 쪽으로 와서 행주대교를 넘어서 진입을 하던지, 아니면 저쪽 인천 쪽에서 진입을 하던지, 나들목이 몇 곳 있습니다마는, 어떤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오던지 간에, 일단 인천공항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을 향하여 자동차로 진입을 딱 해 버리면, 도중에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공항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빠져 나올 방법은 다시 그 길을 되돌아 나오는 수밖에는 중간에 어디 다른 곳으로 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천공항 길의 구조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인천공항 길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도중에 어디로도 빠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진입했으면 하나의 목적지로 도달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좀 더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 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였어도 그것이 그대로 되었으리라’ 할 때, 이 믿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지 않았었더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땅을 밟고 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땅을 밟고 살고 계시지마는, 그 분이 지금 현재 이 시간 내 눈앞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행동하게 되는 모든 동기가 하늘로부터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조국의 형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방민족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이, 가장 ~ 먼저 반응해야 될 현실이었지마는, 주님께는 눈앞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조국의 현실이 그분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이유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은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진입로와 같은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 가는 그 마음은 인천공항에 진입한 자동차와 같아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오직 주님과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하늘로,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길 믿음이라는 비유를 실제 내용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 '하늘보좌 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할 때 그 믿음은 하늘보좌 길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나들목이 되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좌 앞으로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쫓아 다녔느냐?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삶의 판을 벌려놓고, 그 삶의 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이 다 있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할 때 그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갖기 위하여 소원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에 태웠고, 자기들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진입하도록 끌어당기려고 쫓아다닌 것이지요.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의 인생길에 태우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행위자체가 그러므로 전혀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믿음이 성립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해악을 끼친 자들을,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겠지요, 아마 시간이 좀 흘렀을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결론을 내립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실족치 않게 할 수가 있냐?'
'실족치 않게'라는 말씀을, 딱 요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주제를 갖고 생각해 보면, 나 때문에 화나는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기분 나쁠 사람도 있고, 내가 자식을 키워도 그것이 정말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못 키우고 있는지도 모를 판이고, 내가 화를 냈을 때 그 쪽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뭐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또 내게 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일곱 번이라도, 하루 동안에 나한테 잘못을 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용서를 해 줄 수가 있을 것인가?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도저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뜻으로 믿음을 주세요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더라면’이라고, 지금 이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근데 이 번역을 이렇게 보면, 본래의 뜻이 살지를 않아요.
분명히 이걸 기억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돼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배추씨만한 믿음도 있고, 수박씨만한 믿음도 있고 뭐 달걀만한 믿음도 있는데, 그런 여러 크기의 믿음 중에서,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지금 너희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 지금 믿음을 더 해달라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 생각대로 내게 요청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과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다 될 수 있어, 맞아, 그 말이 맞아.’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 더 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겨자씨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같은 것이다.”

무슨 내용일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겨자씨 같은 것이

다.
능력이 없다고 능력을 더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는 일, 믿는다는 일이라는 것은, 더해주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겨자씨 같은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많~은 일을 해 왔다.
지금 너희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이제까지 많~은 일을 해 왔어.
어부노릇을 했고, 세관에 앉아서 세리노릇을 했고, 남편노릇을 했고, 자식을 키웠고 아버지 노릇을 했고, 이웃노릇을 했고,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며 살았고 이 모~든 일을 다 했어,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 것 중에서 믿는다는 일은, 나를 믿는다는 일은, 겨자씨 같은 일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일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하는 일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랬니?
근데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믿는다는 일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작은 일 중에 작은 일인 겨자씨 같은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건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하는 일을 못할 수는 있어 맞아, 믿음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능력을 발휘했던 모든 일 중에, 겨자씨만큼 가장 작은 능력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이, 믿는다는 일이다.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해야 정확한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자식을 키우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돼요.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 마음을 드려서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뛰어서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돼요.
단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마음을 드리면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일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모~든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라 이겁니다.

돈 버는 일이 이보다 쉽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일이, 아니면 골프 잘 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일이? 어려워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하늘보좌 길에 나들목 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더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잘도 하고 살아요.
하지만 제일 쉬운 일인 하늘보좌 길 나들목 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서 올라타는 이 가장 쉬운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전~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길,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하는 내 인생 길에 예수님을 태우려고 하고 있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 그 하늘보좌 길에 나들목 되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진입해 들어가는 이 가장 쉬운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보좌로 가기만 하면,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는 일이 가능해 지고, 용서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보좌 길. 인천공항 길과 같은, 하늘보좌 길에 나들목 되시는 예수님께로 진입을 해 들어가면(내 마음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서 그리 가겠다고 소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다예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하늘로 가게 됩니다.
하늘보좌에 갈 때,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어지시면서 우리 마음이 하늘을 느끼게 되고, 하늘아버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에덴이 임합니다,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을 합니다.
뭘 가르칠까요?
'세상에 쉽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서, 너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도록 해라.'

그러니까 실족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마음을 쳐 박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보상이 주어진다,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서 무병장수하게 되고, 자식문제 다~ 잘 해결 될 것이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 땅의 일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연자맷돌이 목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인천공항 길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하늘보좌 길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내 마음이 진입해 들어가서 하나님보좌에 이르게 될 때는, 이미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내게서 내 마음이 지금 하늘에서 느끼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해 해악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거슬러 아무리 대항해도, 이 몸과 연관되어 있는 내 이름의 명예를 실족시킨다?
내 마음이 하늘에서 좋은 것을 갖고 있는 한,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모욕하던지 간에, 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든지 간에 좋은 건 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좋은 것을 건드릴 수 없는 한, 그들이 아무리 나를 해악을 끼치려 해도 해악을 받지 않게 되고, 거슬리려 해도 거슬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용서 못할 게 없지요.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은 종, 너무 냉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바라지 마라! 모~든 걸 다 섬기되.
그렇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려 갖고 주님이 연결되어 있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자꾸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무슨 보상을 바랄 것입니까?

이미 마음은 하늘에서 다 받았는데,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고, 그 좋은 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재산을 가져 본적도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마음이 주님이라는 나들목을 통해서, 하늘보좌 길을 만약에 이건희 씨 마음이 그렇게 달려갔다 그러면, 이건희 씨는 삼성그룹을 버립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재산 가져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 문재인 씨 박근혜 씨가 지금 혈안이 돼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드려서, 인천공항 길 달려가듯이, 하늘보좌 길을 달려서 하나님보좌 앞에 마음이 이르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면, 하늘을 느끼게 되면, 지금 당장 대통령 출마 포기해 버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늘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갖게 되는 결과인데,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을 바랍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늘나라 경험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되고 살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을 바래요?
이건희 씨가 삼성그룹이 지푸라기 같이 느껴져서 버리게 되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출마를 포기하게끔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를 지금 갖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보상을 바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은,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이루려고 해온 모든 일에 들인 그 나의 능력에 비하면, 겨자씨만한 능력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수고로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눈에 보는 가운데 아예 승천해 버리신 겁니다.

이 길을 보여 주신 거예요.
내려오실 때 벌써 길은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그 길을 못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제야 승천하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따라 올라갔던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을 갖게 되고 뛰쳐나가 하늘을 전한 것이지요.

믿음은! 인천공항 길 믿음입니다.
하늘보좌 길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하늘보좌까지 가야 되는 내 마음!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 온 일 중에 가장~ 작은 일, 마치 내가 해 온 일이 어떤 것은 배추씨 같고 어떤 것은 수박씨 같고 어떤 건 수박 같은 일들이 있는데, 믿음의 일이라는 건 겨자씨 같은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겨자씨 같은 나의 마음들이 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뽕나무가 뽑히는 가장~ 능력이 많은 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까지도, 너에게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인천공항 길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뻗어 있는 하늘보좌 길을 걷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가장~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쉬운 일임을 알고 이 귀중한 복음의 길을 반드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